

# 原油價格 인하의 기대효과

— 韓國開發研究院 —

## I. 油價동향과 인하전망

### 1. 國際原油市場의 最近동향

#### 가. 價格동향

- 지난 12월초 OPEC (石油輸出國機構) 의 시장점유율 固守 선언 이후 일부 油價 대폭 하락

● 최근 冬節期 수요 증대로 公示價格 수준에까지 접근하였던 現物油價는 유중에 따라 10달러까지 하락

現物油價 추이

(單位: \$ / B)

	會議前 (11월말)	會議後 (12월8일)	86. 1. 21
北海 BRENT油	29.35	25.20	19.85
소련 URALS油	28.20	25.70	24.45

● 주요 先物油價도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.

先物油價 추이(Light Sweet, NYM)

(單位: \$ / B)

	會議前 (12월2일)	會議後 (12월18일)	86. 1. 21
1986년 2월분	29.14	25.09	20.59
3월분	28.33	24.27	20.81
5월분	27.20	23.35	20.36

- 한동안 公示價格을 고집하여 오던 사우디도 작년 9월부터는 네트백 方式을 도입 판매하고 있음 (公示價格보다 2~3달러 할인판매에 해당)

● 머지 않아 상당폭의 公示價格 인하가 예상됨.

사우디 公示價 추이

(單位: \$ / B)

1978	1979	1980	1981	1982	1983	1984	1985
12.7	24.0	32.0	34.0	34.0	29.0	29.0	28.0

#### 나. 價格하락 요인

- 세계 石油수요의 지속적 감소

● 에너지절약, 石油代替투자효과 등으로 선진국의 에너지原單位指數 대폭 개선

선진국의 에너지原單位지수 1973 (100) → 1983 (79)

● 미약한 世界經濟 회복에 따른 石油소비 저조

● 1979년 이후 세계 石油소비는 평균 1백만B /D 감소

自由世界の 石油需給 추이

(單位: 百萬B/D)

	1979	1982	1985	年間증감률75-85
세계 소비	52.4	46.0	45.6	- 2.3%
선진국	41.6	34.6	33.8	- 3.4%
개도국	10.8	11.4	11.8	1.5%
재고 변동	1.3	- 1.1	-	-
計	53.7	44.9	45.6	-
非OPEC 공급	22.1	25.1	28.5	4.3%
OPEC 공급	31.6	19.8	17.1	- 9.7%

〈資料〉 IEA, Oil Market Report, 各號

- 非OPEC의 산유량 증가로 OPEC의 시장지배력 약화

**OPEC 世界原油生産 점유율**

(單位: 百萬B/D)

	OPEC 생산량	非OPEC 생산량	共產圈 생산량	世界총 생산량	OPEC/ 世界%
1974	31.1	16.6	11.0	58.6	(53.0)
1979	31.5	19.9	14.4	65.8	(47.8)
1984	18.3	24.3	15.1	57.8	(31.7)
1985. 1~9月	16.5	25.0	14.2	55.7	(29.6)

〈資料〉 British Petroleum,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, 1984.

Petroleum Intelligence Weekly, 各號

**2. 原油價 단기전망에 관한 시나리오**  
(금년 2~3 월 중의 인하폭)

가. 基準價格 23\$/B 수준으로 인하(5 달러 하락)

- 第74次 OPEC總會에서 油價안정보다는 시장점유율 고수를 결정함에 따라 상대방의 油價하락이 예상된다.

● OPEC은 非OPEC 국가들의 생산확대 自制를 요구하고 있으나, 非OPEC은 거부하고 있음.

● 따라서 OPEC과 非OPEC間的 가격경쟁은 續연시되고 있음.

- 이 시나리오의 關鍵은 OPEC特別委員會의 산유량 결정 및 사우디의 산유량 향방에 달려 있음.

● 사우디가 현재의 450萬B/D 산유량을 계속한다면 油價급락(5 달러 이상)은 피할 수 없음.

● 현재 사우디는 原油販賣 收入의 급감으로 재정수지가 크게 악화됨에 따라 생산조정자(Swing producer)의 역할을 포기하였음.

● 금년 2월 OPEC 특별위원회 的의에 따라 사우디도 산유량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이나, 價格폭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의 尙당된 쿼터량(435萬B/D) 수준에서 제한적인 Swing Producer의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음.

나. 基準價 20\$/B 수준으로 인하(8 달러 하락)

- 基準價格 23\$/B 수준으로의 인하에도 불구하고, OPEC의 시장점유율이 감소할 경우 20달러 수준으로의 인하가능성도 있음.

- 그러나 베럴당 20달러보다 더 낮은 수준에 까지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음.

● 지나친 價格하락은 原油에 대한 수요를 크게 늘어나게 함으로써 價格을 상승케 할 것임.

● 대부분의 OPEC국가들도 현재의 재정수지 압박이 더욱 가중될 것이므로 油價의 대폭 인하는 원치 않고 있음.

**II. 油價인하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**

**1. 그룹별 국제수지의 변화**

가. 原油輸入國의 부담경감

- 英國, 노르웨이 등 原油수출국을 제외한 대부분 선진국의 국제수지 개선

- 非産油開途國의 수입부담도 현저히 감소

나. 原油수출국들은 石油收入 감소로 국제수지 악화

**經常收支 추이와 전망**

(單位: 10億달러)

	1983	1984	1985	1986 26\$/B	油價인하에 따른 영향	
					23\$/B	20\$/B
先進國	-22.9	-64.3	-63.6	-55.7	+12.5	+20.0
開途國	-50.9	-40.7	-33.5	-33.5	- 6.0	-10.0
石油輸出國	-15.8	-16.5	-15.5	-14.9	- 9.0	-15.0
非産油國	-35.1	-24.2	-18.0	-18.6	+ 3.0	+ 5.0

註: 共產圈의 經常收支 및 오차·누락은 생략.

WEFA 자료를 중심으로 조정된 숫자임.

〈資料〉 WEFA, World Economic Outlook, 1985. 12

WEFA, Could Europe Grow Faster?, 1985. 5

## 2. 세계경제의 성장과 인플레이

- 油價인하는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세계경제의 회복에 기여

● 선진국 소비자의 實質購買力 증가: 油價인하는 직접적으로 소비자의 油類 소비지출비용을 절감하고, 간접적으로는 전반적인 인플레이 하락으로 실질구매력 증가(美國의 경우 油價의 23달러 수준에로의 인하는 민간소비지출 증가의 한계 기대효과는 약 0.7%임).

● 誘發的인 투자 및 국제교역량의 증가: 민간소비지출이 증가하여 설비가동률이 상승하고 景氣회복전망이 밝아짐에 따라 투자가 늘어나게 되며, 이로 인해 수입수요 증가

- 이러한 경기회복 과정에서 선진국의 경제정책은 성장촉진적인 基調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.

● 第2次 석유위기 이후 선진국의 건축노력에 힘입어 인플레이가 상당히 진정되어가고 있으며, 油價인하로 인플레이는 더욱 둔화될 것이므로 緊縮基調는 상당히 후퇴할 것임.

● 일시적으로 산유국의 借入 증가 등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의 구조변화로 국제금리가 다소 상승할지 모르나, 결국은 인플레이의 하락, 비교적 여유있는 통화정책기조에 힘입어 美國 등 선진국의 금리는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.

● 따라서 消費者 金融 수요확대, 기업의 투자자금 코스트 하락, 企業利潤 및 자금사정의 호전 등에 힘입어 소비 및 투자회복의 여건 조성

- 油價가 23달러 수준(사우디 公示價格 기준)으로 하락할 경우의 한계기대 효과

● 향후 1년간의 선진국 GNP성장 약 0.4% 포인트 증가

● 선진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율이 2년에 걸쳐 10% 포인트 하락

● 세계 교역량 증가 약 0.8% 포인트, 非產油開途國의 수출은 약 1~1.5% 포인트 증가

## 3. 國際金融市場

가. 借入여건 및 開途國 채무문제

- 油價하락으로 멕시코, 나이지리아 등 巨額債務

산유국들의 石油販賣收入이 현저하게 감소할 경우,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외채위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음.

- 이에 더하여 전체 산유국의 국제수지 악화 때문에 開途國의 국제금융시장 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임.

### 나. 國際金利

- 油價하락은 인플레이를 더욱 진정시킴으로써 금리를 인하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, 경기회복을 가속화함으로써 자금수요가 늘어나게 되어 금리상승 압력도 수반하게 되므로 어느 효과가 더욱 클 것인지 판정하기는 어려우나, 금융완화기조가 계속된다면 금리는 다소 약세를 보일 전망이다.

### 다. 換 率

- 선진국중 石油輸入 비중이 높은 日本, 西獨, 美國의 통화가 石油수출국인 英國의 파운드貨에 대해 강세를 보일 것임.

## Ⅲ. 油價인하와 國內經濟

- 5달러 인하의 경우 1년간의 파급효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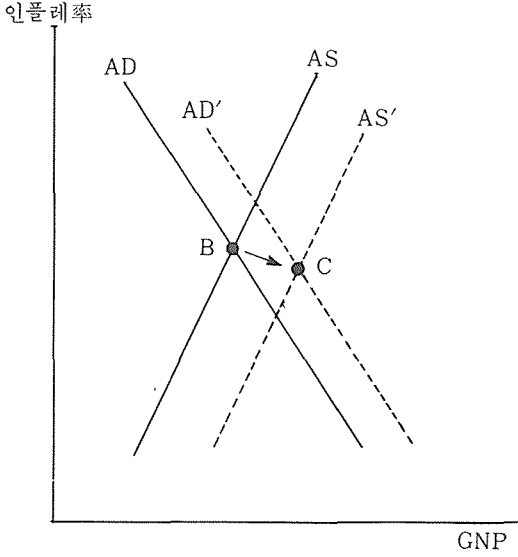
### 1. 概 觀

- 현 시점에서 판단할 때 다소 보수적이기는 하나, 늦어도 3월까지 사우디 基準價가 5달러 인하된다는 假定下에 국내경제에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함.

- 原油가격이 하락하면, 우리나라와 같은 小型開放經濟의 경우 總供給 曲線과 總需要 曲線이 모두 右方으로 이동하게 됨.

- 總供給 曲線은 주요 생산요소의 하나인 原油의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이동하게 되며 세계교역 증대에 따른 수출수요의 증가로 인해 수요곡선도 右方으로 옮겨가게 됨.

- 그러나 공급측면의 효과가 보다 크게 되어 油價하락은 결국 성장을 상승, 인플레이率 하락의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임.



AD : 당초의 總需要曲線  
 AS : 당초의 總供給曲線  
 B : 당초의 균형점  
 AD' : 油價인하후의 總需要曲線  
 AS' : 油價인하후의 總供給曲線  
 C : 油價인하후의 균형점

## 2. 原油輸入負擔 경감

- 사우디 基準油價가 23달러로 하락하는 경우 연간 수입부담 경감은 약 9億달러가 될 것임.
- 우리 原油輸入單價가 약 17%, 배럴당 4.5달러 하락하는 것으로 假定(中東產 原油비중의 저하 추세, 장기계약분의 존재)
- 輸入負擔 경감 : 4.5달러 × 2億배럴 = 9億달러

### 우리나라 石油輸入의 구성

(單位 : 百萬배럴)

	1983		1984		1985上	
		%		%		%
全 体	192.9	100	199.7	100	100.7	100
사우디	58.9	30.5	35.8	17.9	13.8	13.7
이 란	31.4	16.3	39.8	19.9	17.2	17.1
리비아	9.0	4.7	8.6	4.3	3.1	3.1

## 3. 世界景氣 회복의 加速化에 따른 수출 증대

- 油價가 23달러로 인하될 경우 세계교역량이 0.8% 추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의 非中東지역수출(實質)은 1.6% 포인트 정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.
- 油價인하에 따라 輸出單價는 약 0.6% 하락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.
- 따라서 명목수출 증대는 약 2.5億달러로 추정됨.
- 한편 수출증대에 따른 GNP 성장효과는 약 0.45% 포인트로 추정됨.
- 實質 商品輸出 증가(전체) : 약 1.5%
- 성장의 수출 탄성치 : 0.3
- 成長 增大효과 : 1.5 × 0.3 = 0.45%

## 4. 中東건설 및 商品수출의 감소

- 油價인하에 따라 中東지역에 대한 건설 및 상품수출이 감소할 것임.
- 建設 入金額은 1.5億달러, 상품수출은 1.0億달러 정도 감소할 것으로 가정함.
- 이것이 GNP 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-0.2%로 추정됨.

## 5. 소비 및 投資증가

- 油價인하에 의한 실질구매력 증가에 따라 소비 및 투자가 증대될 것이므로 實質 GNP가 0.3% 포인트 추가상승할 것으로 예상됨.

## 6. 物價하락

- 油價가 23달러로 인하되고 이에 따라 모든 국내 가격이 신축성 있게 비례적으로 인하조정 된다면 공급측면에서 볼 때 도매물가는 약 3%의 인하요인이 있음.
- 도매물가 구성항목중 石油類製品의 직접적인 加重値는 13.6%이며 산업용 電力 등 中間財 投入分까지를 고려하면 약 20% 내외가 될 것임.

- 그러나 성장 및 수요증대가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며, 국제油價 인하분 全額만큼 국내油價를 인하할 수 없는 사정이므로 도매물가는 1.5%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.

- 원유관세 및 석유수입기금 인상 예정
- 작년중 환율인상과 LPG가격인하에 따른 정유회사 수지압박완화 필요

- 소비자 물가에는 직접적인 油類加重價가 매우 작으나 연료비, 교통비를 위시하여 전반적인 제품원가의 인하를 반영하여 1.0% 내외의 하락이 예상된다.

### 7. 국내경제에 미치는 종합적인 효과

#### 成 長

- 油價인하의 GNP 성장효과를 종합하면 연간 약 0.5~0.6%로 추정됨.

- 非中東國 수출증가에 따른 성장가속 0.45%
- 소비 및 투자증대에 따른 성장 가속
- 中東건설 및 商品輸出 감소에 따른 성장 둔화 -0.2%

### 國際收支

- 국제수지 효과를 종합하면 연간 6억달러의 경상수지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.

- 原油輸入 경감 9달러
- 非中東國 수출증가 2.5달러
- 中東건설 및 상품 수출 감소 -2.5달러
- 國內成長 가속화에 따른 수입 유발 -3億달러

### 物 價

- 도매물가는 약 1.5%, 소비자물가는 1%의 하락이 기대됨.

### 8. 86년중의 국내경제 파급효과

- 原油가격이 3월중에 5달러 인하된다면 86년중 국내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前記 종합효과보다 다소 줄어든 수준이 될 것임.

- GNP 추가성장 약 0.4%
- 經常收支 개선효과 약 4~5億달러
- 도매물가 하락 약 1%
- 소비자 물가 하락 0.7~0.8%

## □ 海外石油開發短信 □

# 日 住友石油開發, 北海 광구에 진출

Britoil PLC는 北海의 1개 Block에 대한 지분 40%를 1천 50만 파운드에 日本의 住友石油開發(株)에 매각했다고 발표했다.

이 Block 16/28B는, 대부분의 매장량이 Block 16/21A 근처에 위치해 있는 Balmoral 油田에 대한 Britoil의 3.08%의 지분을 포함하고 있다.

住友商事的 자회사인 住友石油開發(株)의 이번 광구 구입은 이 회사로서는 첫번째의 英國 대륙붕개발에 대한 참여이다. 35%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Arco British Ltd.는 Block 16/21B에 대한 Operatorship을 맡게 될 것이다. 이 Block에 대한 기타 파트너는 Carless Exploration Ltd., Goal Petroleum PLC 등으로 각각 12.5%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.

Aberdeen 北東 140마일의 Balmoral 油田은 1975년에 발견되어 North Sea Sun Co.에 의해 운영되어 왔

었다. 이 油田은 현재 개발중이며 1987년에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다. 이 Sun의 자회사는 Block 16/2A에 대해 62%의 지분을 소유한 運營者이며 參與會社는 Deminex U. K. North Sea Ltd. (15%), Clyde Petroleum PLC (10%), Thomson North Sea Ltd (80%), Hampton North Sea Ltd (5%) 등이다.

住友商事的의 3.08%의 지분을 제외하고 Balmoral 油田에 대한 기타 지분 소유자는 North Sea Sun Co. Ltd (57.23%), Deminex U. K. North Sea Ltd. (13.84%), Clyde Petroleum PLC (9.23%), Hampton North Sea Ltd. (4.62%), Thomson North Sea Ltd. (7.38%), Arco British Ltd. (2.7%) Carless Exploration Ltd. (0.96%), Goal Petroleum PLC (0.96%) 등이다. <AP-DJ 1986. 2. 3>